

#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 - 어휘추측전략을 중심으로 -

SIYAPHA PANUMMA\*

### 초록

본 연구는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자는 한국에 도입된 중국의 문자이며, 한국어의 어휘 체계에 영향을 준 만큼 중요한 문자이다. 다만 현재의 한국어는 한자의 역할이 상당히 줄었지만 어휘의 의미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보면, 한자권인 중국과 일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한자의 글자 모양이나 음을 통해 한자어의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연구자가 비한자권 학습자 입장으로 한자어 교육을 보면, 비한자권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학습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발하여, 비한자권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한자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비한자권 학습자에게는 체계적인 한자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는 한자권인 중국어권이나 일본어권 학습자들에 비하면 한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므로 한국어 학습에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한자권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교육 및 어휘 교육과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비한자권인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에 관한 현황과 요구 및 불안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의 어휘학습 전략 중심으로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수·학습 전략에 대해 마련하였다. 본 연구가 앞으로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 특히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및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비한자권 학습자; 한자어 교육; 어휘추측전략; 한국어 읽기 교육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학과, 석사과정, 2020 학년도 후기 졸업, 이메일: seulbi1991.sp@gmail.com

# A Study on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of Sino-Korean Word for non-Chinese-speaking Learners: Focusing on Using Vocabulary Guessing Strategies

SIYAPHA PANUMM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effective Sino-Korean wor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non-Chinese-speaking Korean learners. Chinese characters are introduced in Korea and are important as they have influenced the Korean vocabulary system. However, the role of Chinese characters in current Korean languag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but it plays a very big role in terms of the meaning of vocabulary.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Chinese and Japanese Korean learners have prior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so they can easily infer the meaning of Sino-Korean word through Chinese character shapes or notes.

The fact that non-Chinese-speaking Korean learners have no background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compared to Chinese-speaking and Japanese-speaking Korean learners, makes learning Korean uncomfortable and more difficult. Through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2 Thai students who have middle and advanced Korean language skill to examine

---

\* Master's degre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seulbi1991.sp@gmail.com

the current status of Sino-Korean word education, the importance of Chinese characters in learning Korean vocabulary, and the needs of learners to learn Sino-Korean word. In addition, prior studies and reading materials collected theoretical information on how Sino-Korean word education affects Korean reading education and vocabulary education. Hopefully, this study will effectively help non-Chinese Korean learners, especially Thai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ailand.

**Keyword:** Non-Chinese Language Learner; Sino-Korean word; Vocabulary

Guessing Strategy; Korean Reading Education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어 교육에서의 읽기 교육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휘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외(2019)에 따르면 현대 국어 어휘를 어종에 따라 분류하면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3종 체계를 이루고 있다. 짐작할 수 있겠지만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매우 많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단어 50만여 개를 분류하여 통계를 내 보면, 한자어 58% > 고유어 25.9% > 기타(혼합 형태) 10.9% > 외래어 4.7%로 한자어가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이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중급 이상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일본어권/중국어권 등 한자권 학습자를 고려할 때 매우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기도 한다(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외, 2019, p. 396). 그러나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비한자권 학습자에게는 한국어 학습에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비한자권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국어 학습하기에 이러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설혜경(2009, p. 158)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언어 학습의 궁극적 목적은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다. 그런데 외국어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 많은 것들 중에서 특히 어휘력 즉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그 어휘들의 형태, 의미, 활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아는가'는 Wilkins(1972)의 지적이야말로 어휘와 어휘력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충분한 어휘력이 없이는 이미 습득한 구조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언급 역시 어휘가 의미 표현과 전달의 기본 단위로서, 의사소통 목적의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정확한 문법의 구사보다도 다양한 어휘의 습득과 구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휘력의 중요성은

<sup>1</sup> 『표준국어대사전(1999)』 수록 어휘의 어종별 통계 (정호성, 1999;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외, 2019, p. 396 재인용)

어종 분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기타 (혼합 형태)	합계
표 제어	111,299	251,478	23,196	54,289	440,262
부표 제어	20,672	46,438	165	1,234	68,509
합계	131,971	297,916	23,361	55,523	508,771
백분율	25.9%	58.5%	4.7%	10.9%	100%

한국어 학습과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어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아무리 정확하게 문법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어휘량으로는 의사소통의 한계에 부딪히는 데 반해 문법적으로 진척이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어휘의 나열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경험적 사실 역시 정확하고 풍부하게 어휘를 익히는 것이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한 점임을 알게 해준다.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을 시작할 때부터 외국어 학습이 상당히 진척된 때에 이르기까지 많은 외국인 학습자는 항상 어휘력의 부족을 느끼며 어휘량을 늘리려 애쓰게 되고 그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즉 어휘력의 향상이야말로 외국어 학습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자어 교육은 어휘 교육에 포함된 일부분이며 최근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어휘력 향상의 측면에서 보다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는 일반 목적의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학문 및 전문 직업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특수 목적의 학습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은 전문어(technical vocabulary)나 사고 도구어 등을 학습해야 하며, 외교관과 같은 전문 직업 목적 학습자들도 업무 관련 전문어를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대부분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한자어가 가진 특수하고 세밀한 의미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특히 비한자권 학습자의 경우 한자어 학습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한자어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이영희, 2008, p. 1). 또한, 초급 단계에서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조어력이 강해 학술용어, 전문용어, 일반용어 등에서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자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김경옥, 1999, p. 13; 박덕규 외, 2019, p. 1).

한자권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한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한자의 글자 모양이나 음을 통해 한자어의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는 이러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자권 학습자보다 한국어 학습하기에 체계적인 한자어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어에서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의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됨으로써 한자어가 한국어 어휘학습에 가장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비한자권 학습자가 있어, 본 연구 대상을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어 교육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비한자권 학습자 대상으로 한자어 교수·학습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여 비한자권을 위한 효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1.2 선행 연구 검토

한자 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인 한자권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최근에 비한자권 학습자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한자권 한자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윤미소(2019), 박덕유(2019), 김신혜(2019), 이영희(2019) 등이 있다.

윤미소(2019)에서는 한자어 교육에서도 한자 접사에 주목하였다. 접두사 교육에서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2가지의 교수법으로 교수하여 각각의 교수법에 따라 어휘 향상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교수법에 따라 설명 중심 교수법으로 교수한 실험 집단 A와 탐구 중심 교수법으로 교수한 실험 집단 B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여 각 집단별로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설명 중심 교수법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사전 시험에 비해 사후 시험에서 점수가 향상되면서 대부분의 한자 접두사를 습득하고, 습득을 통해서 접두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파생어를 보고 어휘의 뜻을 추론하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덕유 외(2019)에서는 한국어 어휘 체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를 주목하고 TOPIK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2음절 초급 한자어를 선정하여 새로운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한자권 초급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각 단자와 대응된 의미 양상을 고찰하고자 단자와 대응된 의미, 관련된 한자어, 그리고 난이도 및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김신혜(2019)에서는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 중 한국어 학습 이전에 제2언어로 중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고구술법(Think-aloud method)을 활용하여 한국 한자어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 등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모어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 이전에 배운 다양한 외국어 학습 경험이 한국어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로는 중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 3명과 중국어 학습 경험이 없는 학습자 3명을 모집하여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사전 설문조사를 하고, 사고구술 과제를 실시하였다. 사고구술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사고구술 전사 자료는 중국어 학습 경험 유무와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분석하고 두 참여자 집단이 사용한 전략을 비교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영희(2019)는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모바일 기반 한자어 학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급 수준의 비한자권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자어 학습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모바일 기반 한자어 학습’을 위한 앱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급 수준의 비한자권 학습자 학습자를 위한 모바일 기반 한국어 어휘 학습을 위한 콘텐츠 구축 및 모바일 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바일 기반 어휘 학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자가 자신이 위치한 환경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의의가 있다.

비한자 국가별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림타우 뽀라팟(2013)의 태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진우성(2015)의 영어권(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 선정 연구 등이 있다.

림타우 뽀라팟(2013)에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자어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교육용 한자어 목록을 선정하고 이를 태국어와 의미적으로 대응시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태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진우성(2015)의 연구는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 목록을 선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현지 교재에 출현하는 어휘들이 한자를 얼마나,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어능력시험(TOPIK) 표준 어휘 목록으로부터 선정한 한국어능력시험 교육용 한자 목록과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 목록을 선정하였다. 미국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 목록이 한국어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1.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비한자권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어 교육 방향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어, 연구 참여자는 비한자권인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어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3종 체계를 이룬 것은 한국어의 어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학습 단계별로 보면 초급에서는 고유어를 위주로 가르쳐야 하는데, 고유어는 사용 빈도가 높은 기초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고급으로 갈수록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한자는 개념어와 전문어에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고유어와도 자주 결합하는 등 어휘 체계에서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이영희, 2008, p. 17). 이로 인해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인 태국인 한국어 전공 3~4학년 학생 12명 대상으로 현재 한자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어 어휘학습에 한자어의 중요한 점 등에 관한 현황과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학습, 특히 한자어 교육에 관한 요구를 살펴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Google form)를 진행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와 독서 자료를 통해 한자어 교육이 한국어 읽기 교육이나 어휘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정보들도 수집하였다. 특히 한자어 교육에 어휘추측전략을 활용하여 비한자권 학습자에게 한국어 읽기와 어휘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한자 및 한자어의 정의 및 특징

한자<sup>2</sup>는 한글이 창제되기 전, 한때 한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는가하면 한문(漢文)은 오래 기간 동안 한국의 문자 언어였다. 수많은 한자어가 차용어로서 들어와 오늘날까지 한국어 어휘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아예 한자로 표기되기조차 한다(이익섭 외, 1997, p. 64). 한자 사용은 중국은 물론 한국·일본·베트남 등 인접한 여러 나라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국어의 한자 측면에서는 최상진·김진해(2006, pp. 10-11)에 의하면 대사전 한자 표제어를 빈도를 통해 고찰한 바 총 7,310자의 한자를 사용하는데, 이 중 누적 사용률 90%에 해당되는 한자 1,589자를 제시하였다. 또한 900개 한자를 익히면 7만개의 국어 어휘를 이해할 수 있으며, 25만개의 어휘를 이해하려면 1,600자 정도의 한자를 알면 된다고 하였다(박덕유 외, 2019, p. 205 재인용).

한자어는 한국 한자음으로 발음되는 한자로 이루어진다.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는 대부분 독립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연구의 초창기에는 한자어 교육을 위해 한자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한국인 중에서도 한자를 잘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한국어 문어에서 한자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자 교육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한자어는 어휘의 수도 많을 뿐 아니라 신조어를 만들 때에도 고유어보다 훨씬 더 자주 이용된다. 특히 격식적 상황, 문어, 학문 목적 한국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고유어보다 우월적 지위를 지닌다. 예컨대 '부친(父親), 치아(齒牙)'가 '아버지, 이(빨)'보다 더 품격 있는 어휘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급수가 올라갈수록 한자어 교수·학습의 중요성이

<sup>2</sup> 국어국문학자료사전(이응백 외, 1998)에 의하면,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는 중국의 문자. 한자는 한족(漢族)이, 그들의 말인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표의문자의 하나이다. 뜻과 소리의 결합을 말이라고 한다면, 말을 시각적인 기호로 나타낸 것이 글자이다. 그러므로 글자는 먼저 소리를 단위로 하여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모아서, 뜻의 한 단위를 적어내게 할 수도 있고, 뜻을 단위로 먼저 글자를 만들어 놓고 그 뜻에 맞는 소리대로 읽을 수 있다.

증대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한자 자체에 대한 별도의 학습도 요구된다(이선웅 외, 2019, p. 70-71).

윤미소(2019, p. 10)에서는 고영근·구본관(2018)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자 및 한자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한자는 모양, 소리, 의미가 더해져 만들어진 하나의 화학적 결합체이다.

둘째, 한자는 교착어인 고유어와는 달리 고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를 제외한 굴절 접사가 직접 연결되는 일이 없고, 글자 하나가 음절을 나타내는 음절문자이기 때문에 합성어나 파생어 형성 시 음운이나 형태소의 첨가나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양면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한자어는 한국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고유어에 동화된 면을 가짐과 동시에 중국에서 왔다는 특성 때문에 중국어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순에서 중국어의 속성을 따르기도 하지만, 한국어의 어순을 따르기도 한다(김규철, 1997; 윤미소, 2019, p. 10 재인용).

넷째,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고 한국어의 음운 규칙을 따른다는 점이 있다.

다섯째, 한문이나 중국어에서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한국어에서는 불규칙 어근의 자격만 가지거나 형태소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여섯째, 고유어와 합성어를 이루거나 고유어 접사로 발달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한자어는 한국어 학습자가 고유어보다 쉽게 한자어의 의미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림 1. 한자어 체계(이익섭, 1968; 윤미소, 2019, p. 12 재인용)

그림 1의 분류에서는 한자어를 단일어와 합성어로 나누었다. 단일어는 다시 1음절 단일어와 2음절 이상의 단일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합성어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분류하였다. 이선웅 외(2019)에서도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한자어는 대체로 두 개 이상의 한자 형태소가 어근(root)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혹은 어근과 접사(affix)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가 대부분이지만, 하나의 형태소가 그대로 하나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단일어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단일어는 대부분 1음절이지만 2음절 이상의 말도 드물게 존재한다. 1음절 단일어의 예는 간(肝), 강(江), 문(門), 산(山) 등이 있으며, 2음절 이상 단일어의 예는 포도(葡萄), 독일(獨逸), 이태리(伊太利) 등이 있다.

'결혼(結婚)', 내부(内部), 명함(名銜), 입구(入口)' 등과 같은 한자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한자 합성어의 특징은 한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를 가진 형태소이면서도 한국어에서는 대부분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결혼'에서 '결'과 '혼', '입구'에서 '입'과 '구'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는 어근으로서 반드시 복합어의 구성 요소로만 쓰인다.

'대폭발(大爆發)', 소규모(小規模), 고속익(高收益), 저혈압(低血壓)' 등과 같은 한자어의 예는 접두사 '대-, 소-, 고-, 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한자 파생어이고 '사업가(事業家)', 어휘론(語彙論), 한국학(韓國學), 물리적(物理的)' 등과 같은 한자어는 접미사 '-가, -론, -학, -적'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한자 파생어이다. 이들 한자 접사를 익혀 두는 것은 어근으로만 쓰이는 한자를 익히는 것보다 한국어 어휘 학습에 훨씬 효과가 크다. '폭발, 규모, 사업, 어휘' 외의 다른 어근에 접사가 붙어 계속 새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자어 접사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다.

한편 한자어를 동사나 형용사로 쓰려면 원칙적으로 고유어 접미사 '-하-'를 결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비자립적 어근에 '-하-'가 붙어 이루어진 어휘는 '강(強)하다, 정(定)하다, 망(亡)하다, 단순(單純)하다, 복잡(複雜)하다, 화려(華麗)하다' 등이 있다. 자립적 어근에 '-하-'가 붙어 이루어진 어휘는 '건강(健康)하다, 행복(幸福)하다, 공부(工夫)하다, 운동(運動)하다' 등이 있다. 이는 중급 이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인식하면 한자어를 사용할 때 큰 진전을 볼 수 있다.

## 2.2 한국어 어휘학습과 한자어의 영향

한자는 형(形), 음(音), 의(義)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의 한자 교육은 이 세 가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한자의 훈음(訓音)을 알고, 이를 배합하여 이루어지는 조어(造語)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며, 그 한자어들이 국어에서 적용(適用)되는 원리를 알게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그 비중이나 목표점이 국어교육의 그것과 동일할 수는 없다. 한국어의 어휘학습을 위한 한자 교육에서는 한자의 '형(形)'은 그리 중요한 교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음(音)'과 '의(義)'이며, 그 중에서도 '의(義)'가 더욱 중요하다.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 교육의 목표를 어휘 확장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두었을 때 '의(義)'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김지형, 2003, p. 351).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를 쓴다. 이 점은 한국어 교육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한다. 한국어의 한자어와 다른 언어의 한자어에서 형태와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교수·학습에 긍정적 전이를 일으켜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적 간섭을 일으켜 교수·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이선웅 외, 2019, p. 76). 그러나 비한자권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 한자어든 고유어든 암기해야 하는 것이 한국어 어휘 학습하기에 부담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선정 외(2017)에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대구 소재 K어학당의 초급 혹은 중급반에 한 학기 이상 재학했던 1,591명, 학습자 집단을 한자권과 비한자권으로 나누어 어휘/문법 및 읽기 영역의 성취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자권과 비한자권 집단 모두에서 어휘/문법 점수와 읽기 점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급보다는 초급에서 어휘/문법 점수와 읽기 점수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한자권 학습자의 경우 중급으로 갈수록 어휘 및 문법 능력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중급 단계에 이르면 텍스트에 사용되는 한자어의 비중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비한자권이 한자권에 비해 한국어 어휘 학습의 측면, 특히 한자어의 측면에 손해만 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따라서 비한자문화권 학습자 대상 읽기 교수에 있어서는 어휘 및 문법 능력 이외에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여러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희(2019, p. 71)는 비한자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시적 어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1차적으로는 한자어를 문맥에서 분리하여 익히는 ‘직접적 어휘학습’이다. 이를 위해 한자어의 형태론적 특성인 ‘어휘 형성 원리’를 이용하여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한자어를 목록화한 후,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한자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자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의미’와 ‘형태’를 이용하여 한자어들을 익히는 방식으로 한자어를 익히고 의미를 유추하는 ‘어휘학습전략’을 기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자의 기본 의미(훈)나 파생 의미가 위치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교육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한자어 의미 파악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가령, ‘가(家)’는 ‘예술가, 화가’에서처럼 ‘집’이라는 기본 의미가 아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모두 ‘어말(語末, final)’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한자의 위치별 빈도에 대한 정보도 한자 지식이 없는 비한자권 학습자에게는 유용한 어휘학습전략이 될 수 있다고 한다.

## 2.3 어휘추측전략과 기억하기 전략

어휘추측전략이란 학습자가 모르는 어휘를 처리하는 전략의 하나로서 학습자가 모르는 어휘와 관련된 지식과 맥락 등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어휘학습전략에 대한 연구들에서 특히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문맥에서 추측하는 전략은 학습자들이 어휘학습에서 활용하는 주요한 전략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문맥에서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는 전략을 어휘학습에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읽기에서 문맥 속에서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게 된 것은 1960년대 Goodman(1967)과 Smith(1971)가 읽기의 심리 언어적 모델을 소개한 이후 어휘교육의 방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Goodman(1967)은 읽기를 독자가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새롭게 재구축하는 심리 언어적 과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독자가 텍스트를 읽기 전에 독자 자신의 사전 지식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읽기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어휘, 형태소, 통사론, 문장 단위의 의미론 등의 지식을 활용하여 예측의 결과를 확인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오은희, 2008, p. 20 재인용).

오은희(2008, pp. 22-23)가 제시한 어휘추측전략<sup>3</sup> 중에서 한자어 교육과 관련한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 즉 '단어 형태소 활용하기'로 Nagy(1997), Richards(1985)와 Wesche(1999)등이 제안한 것인데 단어의 형태와 통자구조 자체로 어휘 추측을 하는 전략을 말한다. 주로 어휘의 어근과 접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독해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어휘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쉽게 추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휘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키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라 보았다. 다음으로 '유사한 철자 발음 활용하기'로, Chern(1993), Wesche(1999)등이 제안한 전략인데 동족어나 유사한 철자, 유사한 발음으로 추측하는 전략을 말한다. 학습자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철자의 친밀감이나 음운적 유사성을 이용하여 추론하는 전략이다. 다만 '유사한 철자 발음 활용하기'는 비한자권보다 한자권 학습자와 적합해 보이고 이 두가지의 전략 중에서는 비한자권 학습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단어 형태소 활용하기'일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어떤 단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미 머릿속에 있는 어떤 요소와 관련을 맺어야 한다. 즉 새로운 어휘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요소와

<sup>3</sup> 오은희(2008, pp. 22-23)에서는 정성중(2002)이 제시한 문맥에서 어휘 의미를 추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10가지로 요약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글의 흐름 이용하기(Altick과 Lumsford(1984), Vacca(1986) 등), 2. 주위 단어 활용하기(Chern(1993), Hyanes(1993), Nagy (1997)), 3. 문법 지식 활용하기, 4. 단어 형태소 활용하기(Nagy(1997), Richards(1985)와 Wesche(1999) 등), 5. 유사한 철자 발음 활용하기(Chern(1993), Wesche(1999) 등), 6. 배경지식 활용하기(Haynes(1993), Nagy(1997), Vacca(1986) 등), 7. 다의어에서 알맞은 의미 선택하기(Nagy(1997)), 8. 구두법(Clarke 와 Nation (1980), Konopak(1988) 등), 9. 정서적 느낌 이용하기(Paribakht 와 Wesche(1999)), 10. 논리적 구조 파악하기(Clarke 와 Nation(1980))

연결되도록 연결 고리를 맺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학습전략으로 그룹 짓기 등을 통해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을 묶는 방식으로 어휘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 일종의 고리(hook)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쉽게 잊지 않도록 하는 학습전략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이선웅, 2019, p. 169).

이선웅 외(2019, pp. 201-202)에서 제시된 어휘학습 과정에서의 전략 중에서 기억하기 전략에 대해 언급하였다. 낯선 어휘를 처리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휘를 학습했다고 해서 모두 기억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습한 어휘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위한 기억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가 익히는 단어는 연상의 망 속에 저장되고 기억되며 우리 마음속의 단어들은 서로 의미, 형태, 소리뿐만 아니라 시각에 의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단어와의 연결 관계를 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기억하기 전략 개발에 매우 효과적이다. 의미적 연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의 예는 '교환하다'라는 새 단어를 가르치면서 이미 배운 '환전하다', '환승하다' 등을 가져와서 '환'이 '바꾸다'의 의미가 있음을 다시 환기시켜 '교환'의 의미를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한자어 교수·학습 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적인 어휘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자어는 이 기억하기 정략을 활용하면 적합하다고 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자어의 형태소로써 그 체계를 통해 한자어의 의미를 습득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비한자권 학습자라도 쉽게 습득하기에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

### 3. 비한자권 학습자의 한자어 어휘학습에 관한 요구 및 불안 설문조사

현재 비한자권인 태국에서의 한자어 교육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어 전공 및 부전공 태국인 학습자 3~4학년 재학생 12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0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트위터(Twitter)로 공지하여, Google form 온라인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재학생은 실제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주체로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우선되기 때문이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기본 사항, 읽기와 어휘학습의 불안감, 한자 및 한자어에 대한 생각, 한자어 교육의 현황 및 요구 4가지 주제로 구성했다. 본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이영희(2008, pp. 181-183)가 작성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습자 요구도 조사>를 참조하여 비한자권 학습자에게 맞게 수정하고 재구성했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설문조사 구성 내용

부분	영역	문항
1	기본 사항	1. 한국어 수준 (TOPIK) 2. 대학교
2	읽기와 어휘학습의 불안감	3. 한국어 읽기 수업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4. 한국어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5. 한자어와 고유어나 외래어를 잘 구별할 수 있습니까? (고유어: 고치다 / 한자어: 수리하다, 치료하다 / 외래어: 컴퓨터) 6. 한국어 어휘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	한자 및 한자어에 대한 생각	7. 한자어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8. 한자어 어휘력은 어떤 언어 기능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9.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자/한자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4	한자어 교육의 현황 및 요구	10. 귀하의 대학교에 한자 수업이 있습니까? 11. 한자 수업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12. 한자어를 잘 알면 어떤 분야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13. 한자어 어휘를 구체적인 학습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4. 한자어를 확장하는 수업 내용이나 학습전략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15.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한자어 암기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본 연구는 비한자권을 위한 한자어 교육에 관해 연구하는 목적으로 한국어 중급 이상인 학습자를 중시했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한국어 전공 및 부전공 3~4학년 재학생 총 12명이고 대부분은 TOPIK 시험 기준으로 중급 10명(83.3%), 고급

2명(16.7%)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12명 중에서 한국어 전공 및 부전공 과정을 운영하는 다양한 7개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마하싸라캄대학교(1명), 씰라빠낀대학교(2명), 쿨라롱꼰대학교(1명), 탐마삿대학교(1명), 시나카린위롯대학교(2명), 부라파대학교(3명), 허깐카타이대학교(2명) 3~4학년 학생이 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sup>4</sup>

읽기와 어휘학습의 불안감에 관한 결과, 한국어 읽기 수업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는 문항에서 '어휘'와 '속담/사자성어' 응답이 각 33.3%로 가장 많았으며, '문법' 25%, '표현' 8.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하는 행동을 묻는 문항에서는 '사전에서 찾는다'라는 응답이 58.3%를 차지하였으며, '문맥에서 의미 예측한다'라는 응답이 41.7%로, 이는 학습자의 어휘학습에 주로 사전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자어와 고유어나 외래어를 잘 구별할 수 있느냐는 문항에서 '외래어는 잘 구별할 수 있는데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별할 수 없다'라는 응답이 83.3%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비한자권 학습자가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별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를 잘 구별할 수 있다'라는 응답한 참여자가 1명(8.3%)이고,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를 잘 구별할 수 없다'라는 응답도 마찬가지로 1명(8.3%)만 답했다. 또한, 한국어 어휘(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문항에서는 '한자어'가 91.7%로 나타났으며, 나머진 8.3%는 '외래어'라고 응답했다. 이 질문을 통해 비한자권 학습자에게 한국어 어휘학습에 가장 어려운 것은 예상된 것과 같이 한자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자 및 한자어에 대한 생각에 관한 결과, 한자어에 대한 느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이 '유용하다'(58.3%)였고 나머진 응답은 '어렵다' 25%, '재미있다' 8.3%, '기타'(8.3%)에서 '유용하지만 공부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고 어렵다'라고 보충으로 답하였다. 다음으로 한자어 어휘력은 어떤 언어 기능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다. 참여자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선택 중에서 '읽기'(66.7%)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나머지는 '쓰기'(33.3%)를 차지하였다. 이 문항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답한 참여자가 없었다. 이는 '읽기'와 '쓰기'를 답한 것을 살펴보면 비한자권 학습자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자어가 문자 언어 기능에 음성 언어 기능<sup>5</sup>(말하기, 듣기)보다 영향을 더 준다는 것을 확인할

<sup>4</sup> 탐마삿대학교의 경우에는 인문학에서 한국어 전공이 아닌 한국학 부전공만 개설된 상황이다.

<sup>5</sup> 어휘기능이란 실제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에서 어휘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말한다. 어휘 기능은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된다. 즉, 말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글로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음성 언어 기능(oral skill)과 문자 언어 기능(written skill)으로 나뉜다. 음성 언어 기능에는 듣기와 말하기가 속하고, 문자 언어 기능은 읽기과 쓰기가 속한다(이선웅 외, 2019, p. 157).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자/한자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는 12명이 모두 100%로 '네'라고 응답했다. 이 질문을 통해 비한자권 학습자가 한자 및 한자어 교육의 가치에 관한 인식이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자어 교육의 현황 및 요구에 관한 결과, 대학교에 한자 수업이 있느냐는 문항에서 '없다' 58.3%, '있다' 41.7%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서 '있다'를 답한 참여자에게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보충으로 질문했으며, '한자 쓰는 방법 (순서대로) 한자 1개가 무슨 의미이고 그 한자에서 어휘그룹으로 배움 (예. 수(물) - 냉수, 온수, 수영장 등) 대부분은 같은 한자에서 어휘들의 뿌리를 배움' 등을 답하였다. 주관식 질문을 통해 비한자권 학습자가 받은 한자 교육은 대부분 한자(글자) 쓰기, 발음과 의미를 교육받았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한자 수업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는 문항에서 모두 12명이 100%로 '네'라고 응답였다. 한자어를 잘 알면 어떤 분야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뉴스나 고급 한국어 글을 읽을 때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한자어 어휘를 더 잘 이해하고 암기하게 된다' 25%, '한자어와 고유어, 외래어를 구별하기 쉬워진다' 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급 이상인 비한자권 학습자가 고급 한국어 읽기에서 한자어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자어 어휘를 구체적인 학습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모두 '필요하다'(100%)로 답했으며, 또한 한자어를 확장하는 수업 내용이나 학습전략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문항에서도 마찬가지로 12명이 100%로 '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비한자권 학습자가 한자어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자어 암기 전략을 받은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75%,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2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비한자권인 태국인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한자어 학습 요구 및 불안을 살펴볼 수 있다. 비한자인 태국에서의 한자어 교육에 관한 상황은 예상된 것과 같이 한자어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 측면의 한자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

##### 4.1 어휘추측전략을 활용한 한자어 교수 방안

이선웅 외(2019)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수준별 어휘학습에 대한 논의를 두었는데

한자어는 3급부터 점차 늘기 시작해서 4급이 되면서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표현 어휘와 이해 어휘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어 어휘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좋다고 논의하였다.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자 및 한자어 교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비한자권 학습자는 한자라는 글자에 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자 쓰기를 학습을 시켜도 기초적인 한자만 습득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비한자권 중급 학습자부터는 한자어의 의미적인 차원으로 교수를 제공하되, 한국어 어휘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내용과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한자어의 형태소 인식 익히기

이영희(2008, p. 123)에서는 중급이나 고급의 학습자를 위해서는 한자어의 형성 원리를 잘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한자어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이 한자어의 복합과 파생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도움이 된다. '동물'과 '연구'를 가지고 한자어의 형성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

■ 동 + 물 = 동물(動物)	복합: 움직이는 것은 동물
+학(學) = 동물학(動物學)	파생: 동물에 대해서 공부함
+자(者) = 동물학자(動物學者)	파생: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
■ 연 + 구 = 연구(研究)	복합: 무엇에 대해서 알고 닦는 것은 연구
+원(員) = 연구원(研究員)	파생: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
+소(所) = 연구소(研究所)	파생: 무엇을 연구하는 곳

---

그림 2. 한자어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도식화 (이영희, 2008, p. 123)

위와 같은 한자어의 형성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이미 만들어진 한자어뿐만 아니라, 신어에 대해서도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령, '지합리적 (非合理的)'을 '비+ 합리+ 적(접두사+ 어근+ 접미사)'으로 어근(roots)과 접사 (affixes)를 분리할 수 있으며, '셀카족'과 같은 신어를 '셀카(셀프 카메라) + 족(族) (어근+ 접미사)'으로 분리하여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이 학습자가 한자어를 접사와 어근으로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은 한자어의 형태를 통해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며, 이러한 학습은 모르는 한자어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효과적인 한자어 파생어 교수법은 한자어를 어근과 접사로 분석하여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한자어 파생어를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자어 파생어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용 접사 목록이 필요하다. 이영희(2018)에서는 교육용 한자어의 파생어 사용 빈도목록을 추출했는데 다음 표 2과 같이 '마음'과 '돈'에 관한 한자어 목록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유사 의미 관계에 따른 한국어 교육용 고빈도 접사 예시(이영희, 2008, p. 131)<sup>6</sup>

분류	접사	의미	파생어	
			3음절어	2음절어
마음	-감(感) 162	어떤 것을 느끼는 마음	자신감(34), 책임감(24), 긴장감(13) [우월감(4), 초조감(4), 성취감(1), 승리감(0)]	실감, 예감
	-심(心) 141	어떤 것을 하는 마음	자존심(72), 호기심(45), 자부심(16) [동정심(9), 애국심(7), 경쟁심(4), 충성심(4), 노파심(3), 허영심(3), 자만심(2), 자비심(0)]	안심, 관심, 양심, 욕심, 의심, 인심, 진심
	-관(觀) 79	어떤 것에 대한 견해	가치관(35), 세계관(22) [[인생관(7)]]	
돈	-금(金) 349	어떤 것을 하기 위한 돈	등록금(71), 퇴직금(39), 장학금(25), 보증금(21) [기부금(38), 계약금(36), 친조금(14), 축하금(0)]	벌금, 상금, 세금, 예금, 요금, 임금, 자금, 현금
	-비(費) 249	어떤 것을 하는 데 드는 돈(비용)	교육비(31), 생활비(20), 허숙비(3), 교통비(4) [접대비(5), 생계비(5), 도서비(1), 유지비(0)]	경비, 차비, 학비
	-료(料) 136	무엇을 빌리거나 사用: 소비 관람하는 대가로 내거나 받는 돈	관람료(16), 수업료(11), 원고료(9), 시청료(7), 모델료(4), 통화료(1), 강사료(1), 입장료(9)]	무료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은 한자어의 '음'을 강조하여 교수하기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이영희(2019, p. 72)는 한자어 학습이 형태소의 의미만으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같은 음을 가졌으나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 한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가령, '실수, 실망, 실패'의 '실(失, lose; failure)'과 '사실, 실제로, 실명제' 등의 '실(實, fruit; real)'은 동음이의 한자들이다. 비한자권 학습자의 경우, 한자 인식이 없는 한계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자어 교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sup>6</sup> 이영희(2008)에서 제시된 한자어 파생어목록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을 참조하여 접사를 추출했다.

#### 나) 한자어 의미 확장(연상하기 방법)

한자 형태소의 의미를 이용해서 관련 한자어를 '의미지도 그리기(semantic mapping)'를 이용한 교수법은 한자어 기억 강화 전략이 된다. 이는 한자어 어휘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중급 이상에 적합하다고 한다.<sup>7</sup> 의미지도 그리기에서는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림이나 사진을 제시한다. 시각 자료(visual aids)에 의한 어휘 교수법은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이화자, 1996, p. 102; 이영희, 2008, p. 135 재인용). 또한 한자의 훈, 특히 '고유어'로 된 훈을 함께 제시하면, 한자어와 고유어 간의 유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고 한자어에 대한 풀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익히는 단어는 연상의 망 속에 저장되고 기억되며 우리 마음속의 단어들은 서로 의미, 형태, 소리뿐만 아니라 시각에 의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단어와의 연결 관계를 알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기억하기 전략 개발에 매우 효과적이다(이선웅, 2019, pp. 201-202). 이영희(2008)에서 제시한 한자어 의미지도 그리기 예시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

<sup>7</sup> 의미지도는 최천택(2004, p. 71)에서 이용한 Nagy(1988, p. 12)의 의미지도와 Doug Buel(1995)의 개념 정의지도 그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영희(2008, p. 134)가 만들어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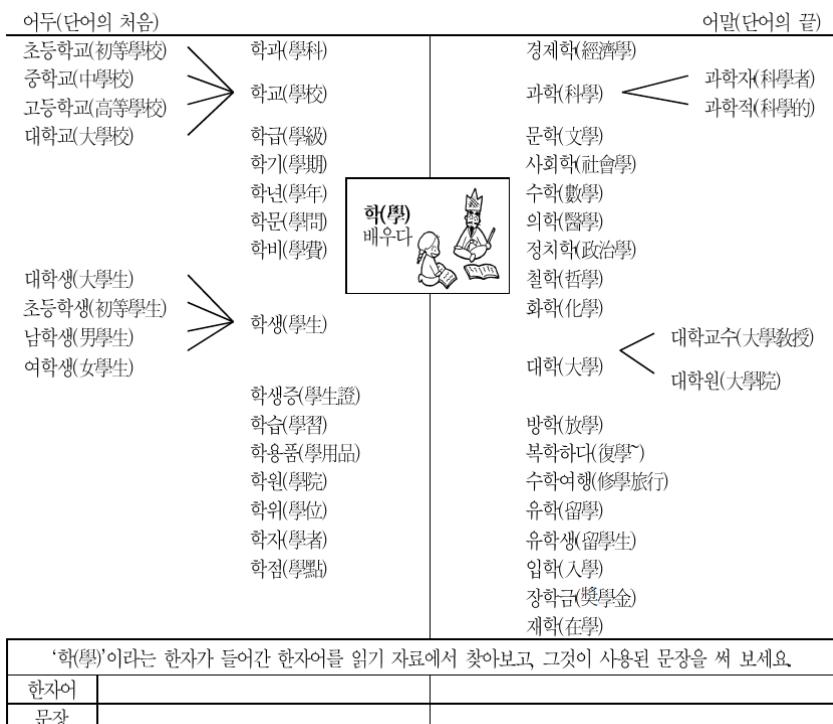


그림 3. '학(學)'을 이용한 한자어 의미지도 그리기(이영희, 2008, p. 135)

또 다른 하나의 한자어 의미 확장 방법은 ‘제시된 한자어를 다른 한자어로 설명하기(조미선, 2012, pp. 45-47)’이다. 학습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자어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한자를 바탕으로 혹은 자주 쓰이는 다른 한자어와 연관하여 배우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질병과 신체에 관한 주제에서는 ‘당뇨병’이라는 한자어에서 ‘당 + 뇌 + 병’으로 구성된 각 자들의 의미를 확장하고 다른 어휘와 연결하는 것이다. 즉 ‘당’에서 ‘사탕, 설탕, 탕수육, 당의정 등’으로 확장할 수 있고 ‘뇌’에서는 ‘노상방뇨, 요도, 요의 등’으로 확장하여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 학습자들에게 이 방법을 활용하면 한자 자체를 배울 필요없이 한자어의 훈을 통해 한자어의 개념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4.2 한국어 읽기에서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학습 방안

Schouten-Van Parreren(1989)은 문맥에서 단어 의미를 추측하는 과정이 맥락에서 제시되는 단서와 개인적인 어휘지식 및 경험들은 서로 관련시키는 능동적인 인지 활동을 하게 되며, 이러한 인지 작용 후에 새로운 단어의 의미 확인이 이루어질 경우 단어 의미 기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단어는 읽기를 통해 그 습득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오은희, 2008, p. 24 재인용). 3장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한자권 학습자가 한국어 읽기를 학습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사전에서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효과적인 습득하기 위해 그 대신에 글의 주변 문법, 단어의 품사, 형태소로서 그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예측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특히 한자어는 고유어와 외래어와 달리 구체적인 품사와 형태가 있다. 한자어의 특징을 활용하여 더욱 글의 문맥에서 한자어 어휘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으면, 한국어 한자어 어휘 학습하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는 비한자권 학습자에게 어려운 것이지만, 어휘추측전략을 활용하면 한자어 어휘가 풍부해지고 한국어 어휘 학습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휘추측전략은 학습자의 어휘 암기력에 긍정적인 영향도 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과 같은 어휘추측전략은 연구자가 선행연구 결과, 이론적 배경에 제시한 내용, 비한자권 학습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며, 비한자권 학습자의 조건에 적합한 한자어 학습에 도와주는 전략을 선정하였다.

#### 가) 어휘 구조 활용하기

어휘 구조 활용하기 전략은 한자어 학습에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자어의 특징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한자어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는 데 있어서 한자어의 형태소(어근+접사) 또한 의미 파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습자가 ‘학생(學生), 학교(學校), 학년(學年)’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學習)’을 보았을 때 의미를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학(學)’의 어휘 형태에 대한 지식이 새로운 단어인 ‘학습(學習)’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이다(김신혜, 2019, p. 17). 그러나 이 전략을 사용하게 하려면 이전에 제시한 것처럼 올바른 한자어의 어휘 형태소 교수법이 필요하다. 즉, 비한자권 학습자가 이 전략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한자어를 습득하기 위해 교사는 한자어의 형태소 인식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강조해야 한다.

#### 나) 문맥 활용하기(글의 흐름 활용하기)

오은희(2008, p. 5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맥을 활용한 이 전략은 학습자들이

텍스트 전체의 흐름을 통해 추측하는 전략으로 한자권 학습자 집단과 비한자권 학습자 집단 두 집단 모두가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습자들은 문맥을 이용한 추측전략은 텍스트를 읽어 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과학하고 있는 글의 분위기나 흐름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 어휘의 의미를 추측해 낼 수 있었던 방법으로 그동안 읽기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특별히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용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은 전략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이 전략을 사용하면 한자어뿐만 아니라 고유어와 외래어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학습자가 ‘-지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 ‘그렇지만’으로 시작한 문장을 보고 선행문과 후행문이 역접 관계에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김신혜, 2019, p. 18).

#### 다) 주변 문법 및 어휘 활용하기

오은희(2008, p. 51)의 논의에 따라 학습자들은 주위 어휘뿐만 아니라 주변의 문법 관계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주위 어휘에서 보다 확장하여 학습자는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추측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알 수 있는 문법, 어휘 정보들을 이용하게 된다고 보고 ‘주변 문법 및 어휘 활용하기’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김신혜(2019, p. 17)도 학습자들이 개별 어휘에서 그 범위를 넓혀 문장 안에서 어휘의 위치 또는 구조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거나, 구두법·인용부호 등을 활용해 의미를 추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비가 오래 안 와서 날씨가 건조하다’라는 문장에서 ‘건조하다’의 의미를 몰랐지만 ‘비가 오래 안 와서’라는 것을 통해 ‘건조하다’의 의미를 추론하면 문법 지식을 활용한 것으로 분류한다.

#### 라) 경험과 배경지식 활용하기

이 전략은 기존 Hasstrup(1987), Paribakht와 Wesche(1999)의 연구에서 ‘배경 지식을 이용한 추측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배경지식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을 포함하여 보다 추측전략의 범위로 확장하였다(오은희, 2008, p. 57 재인용). 학습자들이 텍스트 내의 어떤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해 추측해 내는 전략이다. 학습자가 모르는 어휘를 추측하기 위해 텍스트 내의 정보뿐만 아니라 더 넓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자는 한국어 어휘 실력을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를 포함하여)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금수저’라는 어휘를 보고 ‘금으로 만든 숟가락과 젓가락’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경지식을 통해 ‘부유하거나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 경제적 여유 따위의 좋은 환경을 누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안다면 배경지식을 활용한 전략으로 분류한다(김신혜, 2019, p. 18).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자어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가 비한자권 학습자 입장으로 한자어 교육을 보며, 비한자권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학습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어에서 한자어 학습이 한국어 어휘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비한자권 학습자에게는 체계적인 한자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는 한자권인 중국어권이나 일본어권 학습자들에 비하면 한자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 초급 때부터 기초적인 한자어에 대한 내용, 중급 이상일 때 심화한 한자어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한자권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교육 및 어휘 교육과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비한자권인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자어 교육에 관한 현황과 요구 및 불안 조사를 진행하고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의 어휘학습 전략 중심으로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수·학습 전략에 대해 마련하였다.

한국어 읽기 교육과 한자어 교육에서의 어휘추측전략은 학습자로 하여금 혼자 그 전략들을 인식하면 안 될 만큼 교사가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 학습자, 특히 비한자권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능력을 높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략과 체계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해야 한다. 비한자권 학습자는 한자에 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자어의 의미 추측하기에 틀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 전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본다. 어휘학습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한자권 학습자의 어휘력 발달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 한국어 읽기 이해까지 문제를 연결할 가능성도 크다. 기술적인 어휘학습이 있어, 비한자권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와 어휘 인식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사전에서 모르는 어휘를 찾는 것이 의미를 알 수 있을 뿐인데 장기간 암기하려면 암기에 도움이 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비한자권 학습자는 한국어 읽기 교육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사전에서 의미를 찾는 습관 대신에 어휘추측전략을 활용하면 한자어 의미 확장이나 한자어 의미를 보다 이해할 수 있고 한국어 어휘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선정, Park, Jincheol, 민경모. (2017). KFL 학습자의 읽기 능력 및 어휘력비교: 한자문화권 학습자와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3(1), 1-22.
- 김신혜, (2019). *비한자문화권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의미 추론 전략 사용 양상 연구: 중국어 학습 경험 유무 및 한국어 숙달도 간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형. (2003).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 교수법: 비한자권 외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제어문학회*, 27, 343-358.
- 림타우 빠라팟. (2013). *태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덕유, 이박문, 단재미. (2019). 비한자문화권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TOPIK 초급 한자어를 중심으로. *어문연구학회*, 102, 203-242.
-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공편. (2019).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2*. 아카넷.
- 설혜경, 심혜령. (2009). 비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34, 157-174.
- 오은희. (2008).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추측전략 분석 연구: 한자권-비한자권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미소. (2019). *비한자권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 접두사 교수가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웅, 이정화, 서경숙. (2019). *한국어 어휘 교육론*. 한국문화사.
- 이영희. (2008).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9). 비한자권 학습자를 위한 모바일 기반 한자어 학습에 대한 연구. *한국리터러시학회*, 2019(5), 69-77.
-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1998).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이익섭, 이상억, 채완. (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조미선. (2012). *비한자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우성. (2015).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한자 선정 연구: 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eceived: August 23, 2021

Revised: September 15, 2021

Accepted: November 19, 2021